

Artistic Daily Life

# LA SERENISSIMA

취재 한성욱

쏟아지는 햇살 사이 예술가의 영혼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집. 그 바탕 위에 일상 공간의 문법을 정교하게 덧씌운 LA SERENISSIMA는 평범한 하루에 잔잔하고 찬란한 빛을 흩뿌린다.

Design / valentino architects

Location / Attard, Malta

Area / 185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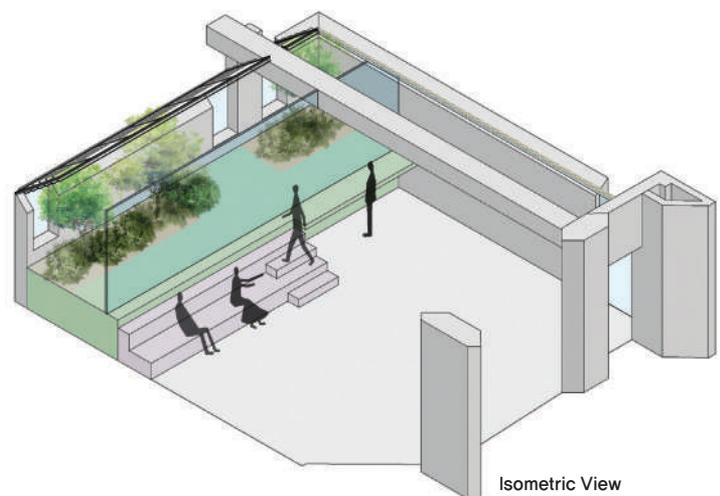
Photograph / RAMON PORTELLI



화가 Frank Portelli가 생전에 집이자 아틀리에로 사용했던 공간을 일반 주거로 재탄생시켰다. Frank Portelli의 손자이자 이곳에서 유년기부터 오랜 시간을 살았던 사진가 RAMON PORTELLI가 이 집의 매력을 살려 사진을 촬영했다.



포스트 모더니즘 양식 건축물에 자리한 주거. 기하학적인 형태의 창이 강렬한 인상을 각인한다.



말라가에 자리한 피카소의 생가, 지베르니를 대표하는 모네의 집과 정원. 예술가가 살았던 집은 그들이 세상을 떠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오롯이 남아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곤 한다. 삶이 곧 작품 세계가 되는 예술가는 집에서 생활과 작업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공간에는 작가 고유의 예술적 감수성과 감각이 깊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Malta의 LA SERENISSIMA는 결정체 큐비즘 양식을 바탕으로 과감한 색과 구성을 보여주어 전후 Malta 예술계의 핵심 인물로 자리 매김했던 화가 Frank Portelli가 직접 디자인해 살았던 집으로 예술가의 숨결이 생생히 남아 있는 바탕 위에 현대적 일상의 틀을 새로 세워 이목을 집중시킨다.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물에 터를 잡은 이 집은 남쪽과 북쪽에 각각 극적일 정도로 커다란 창을 내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공간이었는데,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 남쪽 창을 조절하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영역 일부를 분리해 편안한 쉼터로 재탄생시켰다. 다만 공간에 특별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예술적 기운은 유지하고자 Frank Portelli의 작품에서 생생한 색감과 각진 형태를 따라 디자인 요소로 활용했으며 그가 작업할 때 사용했던 벽과 작품, 직접 제작하거나 수집한 가구 등을 녹여내 일상과 예술이 감각적으로 조우하는 풍경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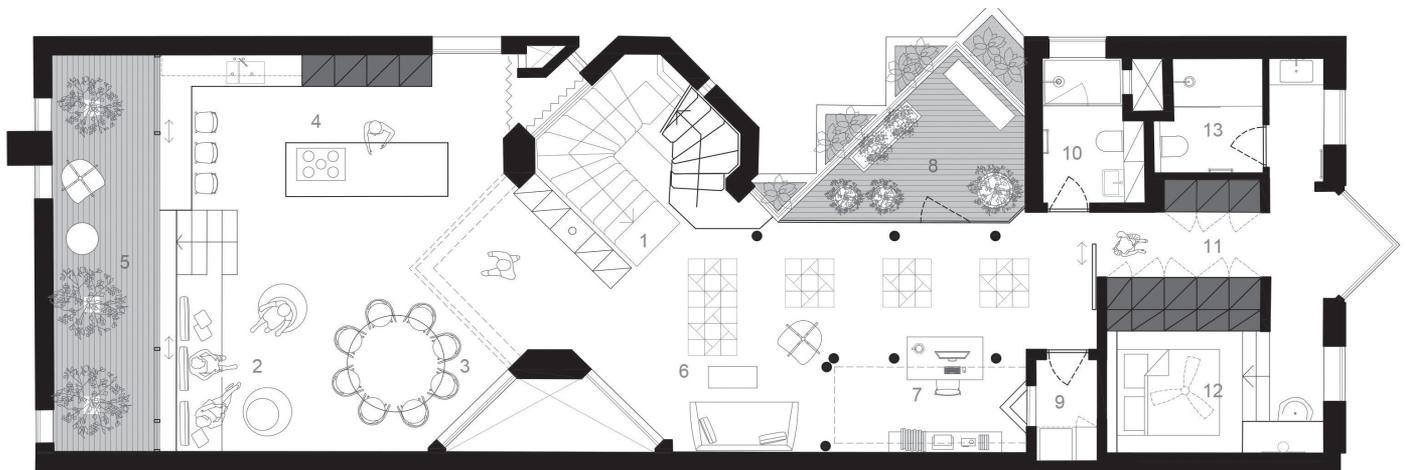
기존의 집은 남쪽의 큰 창이 바닥까지 내려와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일상생활에 적합하도록 창 일부를 벽으로 전환하고 창 앞을 테라스로 변경했다.

남북쪽으로 길쭉하게 뻗은 직사각형 평면의 집은 일상생활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었다. 남쪽은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진 생활 공간, 북쪽은 침실과 욕실이 있는 휴식 공간이며 그 사이의 긴 중앙 공간은 홈 오피스와 온실로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한다. 한 때 화가의 아틀리에였던 남쪽 공간은 벽면을 따라 길게 올라오는 창과 그 위로 경사진 채광창이 있어 자연광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데 때에 따라 너무 눈부시고 더웠다. 디자이너는 채광창은 유지하되 벽면의 창은 양 끝만 제외하고 벽체로 바꿔 빛 유입을 조절했으며, 창 앞 구역의 바닥 단을 높이고 나무 데크를 깔아 테라스로 전환하면서 유리 도어로 내부와 분리해 생활 공간을 한층 아늑하게 만들었다. 별이 드리우는 테라스에는 데크 아래로 나무를 심어 일상에서 자연을 느끼며 잠시 숨을 돌리게 했다. 나무 데크는 테라스에서 거실로 이어지며 계단식 좌석이 되는데 공간을 완만하게 전환하면서 자유롭고 유연한 느낌을 살려 매력적이다. 주방 역시 거실과 통합해 생활 공간 전반에 개방적인 느낌이 감돈다. 경사진 창으로 햇살이 드는 벽에 검은색 주방 가구를 두어 깔끔하게 연출했으며 테라스 방향의 창에 바 테이블을 계획해 밝은 기운을 받으며 간단히 식사하거나 작업하게 했다. 반대편 벽은 전면이 합판 핀업 벽으로 뒤덮여 주거의 독특한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 벽은 Frank Portelli가 작업하면서 실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메모, 그림 등을 보존하고 작품까지 걸어뒤 예술가의 숨결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화가의 흔적은 중앙의 홈 오피스로 이어진다. 기하학적 바닥 타일로 시각적 분리를 꾀한 이 중앙 공간은 복도처럼 긴 벽을 따라 구성했는데, 진한 초록색으로 벽면을 칠하고 박공지붕 형태 구조물로 영역을 정의해 공간을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역할은 확실히 했다. 특히 벽면에 설치한 선반장과 책상은 모두 Frank Portelli가 직접 제작한 가구여서 더욱 뜻깊다. 아울러 맞은편에는 온실을 설치해 일상이 더욱 풍성해졌다. 북쪽은 가장 사적인 휴식 공간인데 기하학적 형태를 띤 창이 천장까지 이어져 차분한 빛을 넉넉히 받아들인다. 창을 기준으로 서쪽에 욕실을, 반대편에 침실을 설계했으며 침실은 창 쪽으로 미닫이문을 내 풍경과 빛을 부드럽게 끌어들이는 한편 바닥 단을 계단식으로 높이고 그 위에 매트리스만 두어 휴식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



거실 한쪽에 화가가 직접 사용하던 합판 핀업 벽을 보존하고 그의 작품을 걸어 예술적 감각이 흘러넘친다.

1. Entrance from Ground Floor
2. Living
3. Dining
4. Kitchen
5. Outdoor Terrace
6. Sitting Area
7. Study
8. Conservatory
9. Laundry
10. Guest W/C
11. Dressing Area
12. Sleeping
13. Ensuite



Floor Plan



주방과 테라스를 가르는 창 앞에 싱크대에서 이어지는 탁자를 배치해 여유롭게 식사하거나 쉴 수 있다.





경사진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환히 밝혀주는 주방. 검은색 가구로 깔끔하게 연출했다.



주거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긴 중앙 공간.  
Frank Portelli의 작품 세계에서 영감을 얻어  
기하학적 형태의 타일로 바닥을 마감했다.



중앙 공간의 한쪽을 홈 오피스로 연출했다. Frank Portelli가 직접 제작한 선반장과 책상을 배치해 흥미롭다.



길고 높은 통창을 설치한 북쪽 구역.



북쪽 창으로 들어오는 차분한 빛이 이층하게 다가오는 침실. 수납장과 침실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